

제1장. 거시경제 전망과 도전 과제

세계 경제는 2025년 격동의 한 해를 보냈지만, 수십 년 만에 가장 거대한 무역 정책 변화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4월 미국이 발표한 전면적인 관세 조치는 무역 정책 불확실성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실제 관세 수준은 당초 우려보다 심각하지 않았고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도 예상보다 제한적이었다. 미국 경제는 견조한 국내 수요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유로존은 제조업의 구조적 부진과 대외 수요 약화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완화세를 보였는데, 낮은 원자재 가격과 수요 약화로 미국 이외 지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었지만, 관세 전가 효과로 인해 미국의 디플레이션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다.

2025년 아세안+3의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웃도는 4.3%를 기록하며, 4월 관세 발표 직후 전망했던 3.8%를 크게 상회했다. 여러 요인이 이러한 호실적을 뒷받침하였다. 견조한 AI 주도의 반도체 수요가 연중 내내 수출 모멘텀을 견인하였고, 미국으로의 수출이 둔화되는 가운데에도 역내 무역은 강화되었으며,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이 내수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했다. 민간 소비는 양호한 고용 여건과 낮은 물가에 힘입어 대부분의 경제권에서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으며, 특히 아세안 지역에서는 첨단 전자제품, 전기차, 디지털 서비스 분야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지속되면서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9%의 낮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2014-2019년 역내 장기 평균치를 하회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운용할 여력을 제공했다. 외환보유액 증가는 변동성이 큰 한 해 동안 역내 대외 건전성 완충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2026년과 2027년 성장률은 주로 미국의 높은 관세가 대외 수요에 부담을 주면서 각각 4.0%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는 지속적인 투자 활동, 안정적인 FDI 유입, 그리고 양호한 노동시장 여건 하에서의 견조한 민간 소비에 힘입어 성장의 주요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주도형 수출 수요는 중요한 상쇄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및 전자제품 수출은 지속적인 AI 관련 투자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 속도는 2025년에 비해 다소 완만해질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6년 1.4%, 2027년 1.5%로 전망되는데, 이는 주로 더 높아진 글로벌 에너지 가격과 여러 국가들의 보조금 합리화 조치에 기인한다.

향후 전망에는 하방 위험이 우세하며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기술 수요와 무역 정책 변화는 양면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상보다 강력한 AI 도입과 자본 지출은 성장률을 기준선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반면, 기술 사이클의 둔화나 관세 인상 재개는 역내 경제 활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높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과 에너지 공급 차질의 지속 가능성은 성장에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 시장 변동성과 주요국의 예상보다 부진한 성장세는 이 지역에 지속적인 하방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아세안+3 정책 입안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책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역내 경제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경제 여건 속에서 2026년에 진입하였다. 2025년 성장률은 예상치를 상회했고, 물가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대부분의 경제는 상당한 재정 및 통화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책 유연성 유지의 필요성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을 반영한다. 명확한 소통과 상호 보완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바탕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제 2 장. 아세안+3의 역내 중심성 강화: 경제 연계의 변화

아세안+3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은 크게 변화해 왔다. 관세 조치, 광범위한 지정학적 경제 재편,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 증가는 이 지역의 단기 회복탄력성은 물론, 심화되는 역내 무역 양상 및 장기적인 입지에 대해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구조적 시각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년 동안 역내 경제 연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경기순환과 거시경제 운영에 갖는 함의를 분석하며, 장기적인 회복탄력성과 성장을 위해 각국이 어떤 방향으로 자리 매김해야 하는지를 고찰한다.

아세안+3의 경제적 연계성은 20년 전과 비교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이 지역을 주로 외부 수요를 위한 제조 거점으로 보는 기존의 특징에 도전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역내 생산 네트워크는 일본 중심의 허브 구조에서 중국 중심의 보다 촘촘하고 상호 연결된 구조로 발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무역은 통합된 생산 네트워크를 뒷받침하는 중간재 및 자본재에 집중되었다. 수요 측면에서도 심도 있는 재편이 진행되었다. 아세안+3는 전 세계 최종 수요의 주요 공급원으로 부상해 그 규모가 미국을 상회하고 있으며, 역내 수요의 중요성도 20년 전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전방위적으로 심화되어, 역내에서 중국의 중요성과 중국에서 역내의 중요성이 함께 커지고 있으며, 아세안, 플러스-3, 중국 간 상호의존성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이 지역이 현재의 무역 혼란에 대해 과거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지역의 수요 기반은 이제 보다 지역 중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역외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졌다. 또한 공급 측면의 통합은 국내 부가가치가 단순히 경로를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역내 가치사슬 네트워크에 내재된 실질적인 생산 연계를 반영한다. 물론 이것이 외부 역풍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기존의 통념보다 더 높은 수준의 회복탄력성을 갖추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역내 경제 연계가 더욱 심화되면서 아세안+3 국가들의 경기변동도 서로 더욱 밀접하게 움직이게 되었으며, 이제는 지역 요인이 글로벌 요인만큼이나 경기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역내 중심성 강화는 외부 수요 충격에 대해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해왔다. 동시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역내 과급효과 또한 과거보다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국내 거시경제 관리가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 차원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역내 정책 교류와 감시 기능은 공동의 취약점을 예측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글로벌 요인은 계속해서 이 지역 경기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글로벌 충격에 대한 대비 역시 여전히 필수적이다.

경기 순환적 고려사항을 넘어, 이러한 변화된 경제 연계 속에서 각국은 어떻게 장기적인 회복탄력성과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많은 경제권에서 가치 사슬 상향 이동으로 인한 이점은 집중 위험의 증가를 동반해 왔으며, 이는 통합의 이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취약점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 정책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고부가가치 창출 활동으로 국내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화를 통해 특정 산업이나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발생하는 취약성을 줄이며, 경제 통합의 성과가 보다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포용적인 참여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아세안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통합 심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무역 자유화 이상의 전략, 즉 역내 투자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

아세안+3의 통합을 형성하는 환경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지정학적·경제적 긴장은 지역 중심적 흐름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재균형은 수요를 점점 역내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녹색 전환은 새로운 통합의 영역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각 국가가 이웃 국가의 경제 상황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수록 정책 교류와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므로 지역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아세안+3는 이미 이러한 역량을 입증한 바 있으며,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구축된 금융 협력 체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 20년간 이 지역의 성장은 개방성, 통합, 협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불확실한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성장 경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